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책의 전시보다 활용도 중시해야... 지역민 특성에 맞춘 '주제도서관'도 대안

공공도서관이 IMF 시대를 맞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백만을 헤아린다는 실직가장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도서관을 찾는다. 어떤 도서관은 열람실의 절반 정도를 30·40대 장년층이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도서관은 늘어난 이용객에게 과연 만족을 주고 있는가.

이용자 중심으로 서서히 변화

서울 종로구의 정독도서관(관장 윤영렬)은 지난 16일 취업 정보도우미방을 개설했다. 도서관 2층에 방을 마련, 취업관련도서 80권과 신문 및 잡지 각 5종, 기타 자료 30종 등 각종 간행물을 구비하고 실직가장들에게 실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후암동의 용산도서관(조준재 관장 대리)도 여러 매체에서 얻은 취업정보를 모아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달라진 이용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빠른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이같은 변화는 이용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공공도서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이용자나 도서관측 모두 대체로 지역사회의 핵심적 문화공간과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명분은 실제와는 많이 달랐다. 중고생들의 공부방 역할에 그쳤던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산'이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자료의 DB화와 관리체계의 전산화 등이 이루어진 후부터는 회원증을 만들면 책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폐가식으로 운영하던 자료실도 완전 개가식으로 개방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벌였다.

시청각자료나 강당시설을 갖춘 도서관은 거의 영화상영이나 주부 대상의 프로그램, 꽃꽂이·서예·외국어 회화 등을 하고 있다. 방학마다 독서교실이나 취미강좌를 열고, 어린이·유아 열람실을 따로 만들어 집에만 있는 주부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낸다. 송파도서관(관장 명성일)은 개인 독서노트를 마련해 방과 후 어린이들을 모으고, 목동도서관(관장 신민부)은 장난감과 매트리스 등 자유로운 분위기의 모자열람실을 만들었다.

도서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 검색대는 이제 낡은 서비스다. 첨단정보실을 갖춘 도서관들이 컴퓨터 통신은 물론 인터넷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백과사전 등 개인이 구하기 어려운 CD롬을 컴퓨터마다 내장해 내용까지 다운받을 수 있다. 학습용 비디오와 CD롬 등 영상자료를 갖춰 대여하는 도서관도 등장했다.

도서관 네트워크 등으로 대출채널 다양화

그런데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변화가 외형적인 데 그친다고 지적한다. 도서관 수나 소장자료의 부족 등 기본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이 동네의 공공도서관"이라며 2억달러를 쾌척한 빌 게이츠의 예에서 보듯 미국의 저력은 그물망처럼 연결된 도서관에서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98년 2월 현재 도서관 1관당 평균 인구수가 12만 4천명으로 뉴욕 6만 6천명, 동경 7만 6천명에 비해 형편없는 실정이다. 또 도서관의 위치가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도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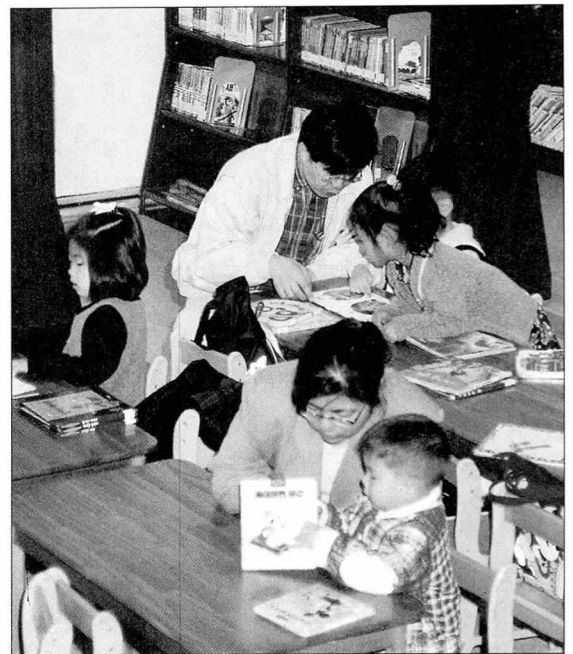
공공도서관협의회(회장 정기영) 실무자는 "중앙국립도서관은 서초역과 충신대역을 오가는 마을버스가 도서관 정문 앞을 경유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동네 구석구석을 잇는 마을버스가 공공도서관을 경유하게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 지방의 작은 마을에까지 파고드는 작은 도서관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보충하는 방법도 제안한다.

작은도서관협의회(회장 김진수)의 전지성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1천348개가 등록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은 책의 전시보다 주민들의 활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라며 작은 도서관의 대안적 기능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관시간이다. 일본은 야간에도 문을 여는 도서관이 반수 이상이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공도서관마다 개관시간을 차별화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있는데, 우리 공공도서관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동절기) 혹은 6시(하절기)로 어느 곳이나 똑같다. 퇴근 후나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도서관의 자료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첨단정보실, 영상자료와 컴퓨터 검색대 등 최근의 도서관 변화가 외형적인 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은 요원하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모자열람실을 개방한 서울 목동도서관.



경기도 광명시립도서관(관장 최정춘)은 최근 종합자료실의 열람시간을 2시간 늘려 눈길을 끈다. 박대복 열람계장은 "퇴근 후가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자료실 이용시간을 늘렸다"며 도서관 입구에서 문을 닫는 10시까지 받는다고 한다. 특히 도서관을 직접 찾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도서배달과 방문반납을 실시하고, 자주 대출되는 책은 전화로 다음 순서를 예약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도서관협의회 박성철씨는 "지금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개관시간 문제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외대출 공유제를 현실화하면 직장인들이 자투리시간에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사서수가 법정인원의 50%도 안되는 형편에서 사서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관외대출 공유제는 도서관의 소장자료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특히 관심을 모은다. 영국의 국립도서관이 대출채널을 전국적으로 정교하게 펼쳐 누구나 회원만 되면 지방도서관은 물론 대영도서관의 자료까지 동네도서관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훌륭한 사례다. 또, 주제도서관 운영도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얼마전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12개소를 각 지역민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접한 해운대도서관은 관광자료를, 공단지역에 위치한 구포도서관은 공업자료를,

장림·신평공단과 인접한 사하도서관은 환경자료를, 농·어촌지역인 기장도서관은 농·어촌자료를 집중수서한다는 계획이다. 도서관별로 자료를 특화하면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도서관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활용할 수 있는 소장자료는 몇 배로 불어난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지역주민의 성향·직장·경제수준·학력수준을 파악하는 이용자 연구를 먼저 하고 자료를 비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하며, 주제도서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관된 도서관 정책이 관건

올해도 도서관은 계속해서 설립된다. 1구 1도서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이 없었던 서울 성동·중랑·관악·광진·성북·강북·은평구가 부지선정을 마쳤고, 금천·서초·중구 등 나머지 지역도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북지역에도 포항·구미·영주 등 3곳, 춘천의 읍면 지역에도 공공도서관이 들 어선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은 요원하다. 만성적인 예산부족과 지자체·교육청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일관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게 한다. 관리체계의 혼선은 공공도서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종적·횡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실무자 모임에 힘을 실어주지 못해 공공도서관 협의회도 현재로서는 친목모임에 그치고 있다. — 이현주 기자